

지금부터 「인구위기대응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인구구조 변화와 위험요인 >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입니다.

총인구가 2020년(5,18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70년(3,766만명)에는

1970년대 수준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2024년 0.70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합계출산율(명): ('18) 0.98, ('19) 0.92, ('20) 0.84, ('21) 0.81

이와같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광범위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우리경제의 성장 제약이 우려되고,

축소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지역 소멸위험도 확산되며,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설계된 교육, 병력시스템도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제도, 사회보험, 복지재정 등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구위기대응 추진방향 >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인구정책 TF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날로 심화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구정책TF에서 인구위기대응TF로 전환하여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10개 작업반에서 11개 작업반으로 확대(미래산업반 추가 설치)

TF산하에 관계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과제를 점검·보완·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규과제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완화, 적응 중심의 추진방향에서 성장, 도약을 보완·강화하고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출산 흐름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을 효율화하고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고,
인적자본 생산성도 제고하여
노동투입 제약이 성장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요인을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과, 로봇 등 축소사회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등
인구감소시대 기회요인을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 >

앞으로 TF 본회의와 작업반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여
인구위기 대응방안과 부문별 대책을
7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내년 예산 반영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F에 참석하는 분들께서는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